

● ETRI zone II ●

I 사랑이 담겨진 영화촬영지를 찾아서 I

<연풍연가>
사랑과 꿈의 세트, 제주...

글 김희철 홍보팀 (XXXXXXXXXXXXXXXXXXXX) 사진 박상년 섭외팀 (XXXXXXXXXXXXXXXXXX)



천연의 아름다운 세트, 제주도에서의 50일
사랑과 꿈과 그리움이 있는 공간 제주도!
완벽한 풍경임에도 수학여행, 신혼여행, 먼 훗날 효도관광의 목적이 아니라면 쉽사리 가게되지 않는 곳, 제주도. 그 곳에서 <戀風戀歌>는 50일간의 촬영을 마쳤다. 촬영장소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戀風戀歌> 속에서의 제주도는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아닌 젊은 남녀를 로맨틱한 환상에 빠뜨리는 생명력을 지닌 제3의 캐릭터로서 존재한다. 드물게 멜로드라마이면서 로드무비의 형식을 취하는 영화 <戀風戀歌>는 두 인물과 제주도라는 독특한 공간, 이들이 어우러진 섬세한 상호작용에 의해 드라마가 이끌어진다. 서울을 벗어나면 모두 다 시골이라는 식으로 도시 아니면 시골의 이분법만이 존재하는 의식 속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독특함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국내 유일의 공간 제주도. 25회의 촬영이 진행되는 50일간 장동건, 고소영을 비롯한 전 제작진은 현지에 머물며 로맨틱한 파라다이스, 낭만적 여행지로서의 제주도를 만끽했는데,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모두들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99년 제주도의 연인,

장동건과 고소영

92년 데뷔시기가 같아 평소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장동건과 고소영이 데뷔 7년만에 처음으로 한 작품에서 파트너로 호흡을 맞췄다. 촬영장에서 잠시도 시나리오를 손에서 놓치 않으며 연기에 몰입하는 장동건, 그와는 반대로 활발하게 촬영장을 누비며 끊임없이 스탭들과 유쾌하게 지내야 연기가 자연스럽다는 고소영.



이들은 성격 만큼이나 연기하는 스타일도 상당히 대비된다.

너무나도 조용하고 얌전한 모습에 동숙이라는 별칭까지 고소영으로 부터 선물(?) 받은 장동건은 순발력과 감각으로 무장한 그녀가 부럽기만 하다. 그러나 사뭇 진지한 그의 모습이 고소영도 가끔씩 부럽기는 마찬가지...

제주도에 머문 50일간 지나치게 가까워 연인이라고 의심받기도 한 동갑내기 장동건과 고소영. 그들은 <戀風戀歌>에서 서정적 풍경 속에 한쪽의 그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겨졌다.

국내 최초의 마라도 촬영

20여 세대의 주민과 전교생 수가 3명뿐인 작은 초등학교, 절벽에 스스로 자라버린 야생 선인장 받, '대한민국 최남단' 이라고 쓰여진, 가슴 뭉클하도록 외롭게 서있는 기념비...

제주도에서 11km 떨어진 9만여평 규모의 작은 섬 마라도에서 국내 최초로 영화촬영이 진행되었다.

제주도에서 관광가이드와 여행자로 만난 태희와 영서의 애뜻한 감정이 시작되는 로맨틱한 공간으로 설정된 마라도, 그 곳에서 진행된 무박 2일 간의 촬영은 쉽지만은 않았다. 대한민국 최남단이라는 지리적 조건 때문인지 섬으로 들어가는 절차 또한 적잖이 까다로웠으며, 6시 이전에 일몰이 이루어지고 나면 섬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버려 촬영 준비에 한창인 스탭들을 곤란에 빠뜨리곤 했다. 또한 매섭게 부는 바닷바람,

섬 전체를 가득 채운 억새풀로 싸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화제가 우려되 불조차 피울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24시간 무박 2일 간의 촬영이 강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제작진은 마라도의 아름다운 풍광에 도취되어 피곤한 기색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가끔씩 낯선 시간 속으로의 여행을 꿈꾼다...

그 사람도 그렇게 내게로 왔다

도시를 떠나 무작정 제주 공항에 도착한 태희. 여느 때처럼 공항에서 관광객들을 가이드 하던 영서.

태희는 그녀 고객의 소매치기를 잡아주고 영서는 그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

그들의 첫 번째 만남은 이렇게 시작된다.

웃는 모습이 나를 닮았다...

그를 사랑할 것만 같다.

태희의 제안으로 그를 가이드하게 되는 영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 두 사람은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제주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게 된다.

낯선 곳,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 어색해하던 그들은 서로에 대한 감정의 시작을 느끼는데...



엇갈리는 만남, 아쉬운 이별,

그리고...



짧은 만남 속에서 싹튼 사랑의 감정에 확신을 못하며 주저하는 두 사람.

이제 정해진 시간은 가고 아쉬움을 간직한 해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태희, 그들의 마지막 만남은 계속해서 엇갈리기만 하는데...

◀ [back](#)

size="2" color="purple">back